산업통상부 보도자료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5. 11. 27.(목)

자동차 관세 파고 넘어 부품업계 미래 논의

- 김정관 장관, 자동차 전장부품 기업 엠넥스 방문
- 15% 관세, NDC 대응을 위한 근본적 경쟁력 확보방안 논의

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1.27(목) 9시 30분 자동차 전장부품 기업 엠넥스(대표: 문성준)를 방문하였다. 어제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법안이 제출되면서 자동차, 자동차부품에 대한 15% 관세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.

대미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은 줄어들었으나, 앞으로 15% 관세에 대한 근본 대응역량 키우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. 김 장관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택성 이사장, 한국자동차연구원 진종욱 원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15% 관세 적응을 포함해 NDC 대응, AI 모빌리티 등 자동차 산업의 미래성장방안을 논의하고, 이에 대한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.

금번 방문한 엠넥스는 자동차 전장부품 기업으로 미국, 유럽, 인도 등 국내외 10개 이상 완성차브랜드에 납품 중이며, 전체 수출의 70% 이상이 미국향으로 미국의 고관세에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. 특히, 엠넥스는 엔진, 변속기를 주력으로 하는 명화공업이 전기차 시대 대응하기 위해 분할·설립한 기업으로 미래차 전환에서도 의미가 큰 기업이다.

김정관 장관은 “對美 관세 인하로 급한 불은 껐으나, 중국 자동차 산업의 부상, 2035 NDC 등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경쟁력 강화가 더욱 중요”하다고 강조하며, “「K-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」(11.14)의 후속조치 이행으로 모빌리티 마더팩토리 구축, AI 생태계 고도화 등을 힘있게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산업통상부 자동차과	책임자	과 장	박태현	044-203-4320
		담당자	서기관	김효선	044-203-4326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**행사 개요**

1. 방문 개요

○ 일시: ’25.11.27(목) 9:30~10:30 (60분)

○ 장소: **엠넥스**(수원 고색산업단지)

○ 참석자: (정부) 산업부 장관, 자동차과장
(기업) 엠넥스 문성준 대표
(유관기관) 이택성 자동차부품조합 이사장, 진종욱 한자연 원장

시 간		주 요 내 용	비 고
9:30~9:33	(03’)	• 모두발언	장관
9:33~9:55	(22’)	• 기업소개 및 애로사항 청취	문성준 대표
9:55~10:30	(35’)	• 전장부품 생산공장 시찰	

2. 기업 개요

기업명	㈜엠넥스	설 립	(전신) 명화공업 ‘57. 8월 (분할) 엠넥스 `21. 9월
소재지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		
해외법인	미국(생산)	대 표	문성준 (`65년생)
매출(`24)	3,147억원	업 종	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
수출(`24)	3,810만불 (對美 2,651만불)	품 목	EOP, EWP , 쿨런트허브 등
주요 납품처	- 미국·유럽·인도 등 국내외 10개 이상 완성차브랜드에 납품 *(한국) 현대차, 기아, KGM, (미국) Ford, GM, 스텔란티스, (유럽) Daimler, 르노, 스카니아, MAN		